

부활절 세 번째 주일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3<sup>RD</sup> SUNDAY OF EASTER

주후 2021년 4월 18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21 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새 531)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6 번 시편 (Psalm) 63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재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신명기 (Deut.) 10:16-21 상	금종각 집사
설 교 Sermon	“다시 만나는 교회(23) – 환대와 배려로” (Gathering Together Again – With Hospitality And Inclusion)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찬양: 윤홍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인도자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524 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새 222)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고,

진실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막연했고,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미숙한 수준에 머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거짓되고 교만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의 거룩하심을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 11:6)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라.”  
(한글개역 신10:19)

“And you are to love those who are aliens, for you yourselves were aliens in Egypt.” (NIV Deut. 10:19)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4/18 (주일)	4/19 (월)	4/20 (화)	4/21 (수)	4/22 (목)	4/23 (금)	4/24 (토)
레22	레23	레24	레25	레26	레27	레28	레29
본문	시28,29	시30	시31	시32	시33	시34	시35
전5	전6	전7	전8	전9	전10	전11	전12
딤후1	딤후2	딤후3	딤후4	딤후5	딤후6	딤후7	딤후8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4/21수 오후7:30)	“차라리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나” (고후21:11)
토요 새벽기도회 (4/24토 오전6:30)	“선하심을 맛보아 알찌어다” (시 34:8-22)

지난 주일(4/11) 말씀

“다시 만나는 교회 (22) – 담대함으로” (출 14:8-14)

출애굽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홍해 앞에서 자신들의 뒤를 맹렬히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대를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한 순간에 두려움으로 바뀌고 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렵고 염려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 - 출14:10).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한 후에 보 여주었던 행동이 어떠했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는 (또 다시) 원망과 불평으로 뒤바뀌게 되었는데, 그들의 원망은 (한 마디로) “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느냐?”는 원망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향한 원망이기 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었습니까? 1)첫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2)둘째는,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식해야 하며, 3)셋째는,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구원을 기대해야 합니다. (결국) 지금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3절에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출14:13)고 선언한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